

폐막 일주일 남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산업화에 너무 치중했나

17만 5000명 다녀가
역대 최악 흥행 예상
디자인 실생활 연계
상품화 추진 기대

향으로 의존도가 심했던 학생 입장객이 줄어들면서 입장객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학교에서 체험학습 코스 등을 정하면서 매년 열리는 행사로 인식되는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 대신에 순천정원박람회를 택했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행사가 산업화에 지나친 무게 중심을 두면서 디자인 본연의 미적 가치 부각 등 비엔날레 정신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행사에서 '비엔날레보다'는 '박람회' 성격이 묻어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았다.

디자인전시회나 디자인박람회와 달리 디자인 본연의 미적·실용적 가치, 사회문화적 관계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획이 사라지면서 비엔날레 정신과 시민 소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디자인센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부산디자인센터재단 등이 참여한 'KDM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도 기존 디자인제품을 단순히 전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기아자동차 디자이너들의 작품 색선과 코오롱 스포츠의 기능성 의류 색선은 후일 기업 홍보 부스라는 인상을 진하게 심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디자인비엔날레 기간 열린 한·동

아시아 문화장관회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2013디자인코리아 다양한 국제대회들을 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 비엔날레재단의 마케팅 전략이 빚나간 것도 아쉽다.

정원형(여·36)씨는 "아이들과 함께 보고, 즐기도록 배려한 유익한 전시들이 많기는 했다"며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정작 일상생활에서 이미 접했던 디자인제품들이 많아 행사 기간 동안 다시 와서 관람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디자인비엔날레가 남긴 긍정적인 평가들은 기대되는 부분이다. 특히 폐막 후에도 '농사와 디자인', '광주·전남 명품 쌀 포장지 디자인', '광주지역 중량계 봉투 디자인', '광주 택시기사 유니폼', '동양화를 활용한 전통공예' 등 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한 각종 산업화 프로젝트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비엔날레 창설 이후 처음으로 불평했던 관람 동선 구조를 바꾼 것도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입장객이 행사의 성과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폐막 후에는 디자인비엔날레가 남긴 것들을 실제 생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도심에 빛의 갤러리로 바꾸는 '2013광주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예술감독 이아남)이 28~29일 '아이 러브 미디어 아트(Love Media Art)'를 주제로 동구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펼쳐진다. 스웨덴 작가그룹인 'F.A.T.Lab'이 27일 밤 전일빌딩 외벽에 빛을 쓰는 리허설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세계 한국 기업인들 광주로

세계한상대회 오늘부터 일정 시작

45개국 3000여명 '비즈니스 축제'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즈니스축제 '제12차 세계한상(韓商)대회'를 앞두고 28일부터 각국의 한상 경제인들이 광주를 찾는다.

〈관련기사 8면〉

호남권 최초로 29일부터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세계한상대회는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라는 슬로건 아래 45개국 3000여명의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리딩 CEO포럼, 영비즈니스리더포럼,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및 멘토링, 일대일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김치특별관, 나눔행사, 코리아 디아스포라 사진전 등 부대행사로 꾸며진다.

개막 전날인 28일 공식기자회견이 열리며 이날 오후에는 차세대 한상들의 교류의 장인 '영비즈니스리더의 밤'이 진행된다.

29일엔 영비즈니스리더의 '광주산업 시찰 프로그램'에 이어 오후 5시 국내외의 15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한상대회의 성대한 막이 오른다.

행사에 참여하는 한상들도 주목받고 있다. 대회장을 맡은 흥명기 두라코트프로드트 회장은 미국에서 특수페인트 산업분야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5위권의 두라코트를 이끌고 있다. 행사 고문으로 참가하는 문대동 미국 삼문그룹 회장은 미국 소매상에 제품을 공급하는 무역회사로 출발해 현재 8개 쇼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창우 일본 마루한 회장은 레저산업 등으로 미국 포브스지 발표 일본 내 자산 순위 8위(3조9100억원)에 오른 마루한의 총수다.

재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인 박종범 오스리트야 영상그룹 회장은 비엔나에 본사를 둔 1조원 규모의 기업이 움직이며 한국의 자동차부품 및 타이어의 수출길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로 넓혔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호남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의 만큼 광주·전남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내년 예산반영 비율

경남 99%·대구 88%

전남은 5.8% 최하위

전남의 내년도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예산 반영비율이 전국 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27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모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177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밝힌 124조원보다 53조원이 많은 금액이다.

지역공약 총 사업비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경북으로 37조9599억원(19.5%)이었으며, 경기(19조5154억원·10.0%), 부산(19조4897억원·10.0%), 대구(18조1045억원·9.3%)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12조5056억원으로 6.4%에 불과했으며, 전남도 12조 1511억원으로 6.2%에 그쳤다.

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지역공약사업비는 총 4조3027억원으로,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6조9851억원의 61.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요구액 중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727억원을 신청해 8070억원(111.7%)이 반영됐으며, 경남은 1284억원의 요구액 중 1267억원(98.7%)이 반영돼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전북 7768억원 중 6952억원(89.5%), 대구 6273억원 중 5543억원(88.3%), 제주 978억원 중 788억원(80.5%), 경북 4408억원 중 2797억원(63.5%) 순이었다. 광주는 1793억원 중 690억원(38.5%)이 반영됐으며, 전남은 4313억원 중 겨우 252억원(5.8%)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김민기 의원은 "강원과 경남, 전북, 대구의 경우 내년도 지역공약사업 신청액이 대부분 반영됐는데, 전남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감사원장 후보 황찬현 검찰총장 김진태 복지장관 문형표

문체부 2차관 김 중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차장을 지명했다.

앞서 25일에는 감사원장 후보에 황찬현(60) 서울중앙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에 문형표(57)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종 한양대 예술체육대학장을 각각 지명 또는 임명했다.

〈관련기사 5면〉

하지만, 정권 출범시 영·호남 출신 인사가 전무했던 5대 권력기관장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2명(국정원장·경찰청장), 경남 2명(검찰총장·감사원장), 충청 1명(국세청장)으로 바뀌어 영남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호남 인사 소외는 갈수록 심각한 상



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경원과 경륜이 풍부하고, 청렴하고 감각적인 성품으로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전직 대통령 아들 사건, 한보비리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한 분"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앞서 25일 이수석은 "황 감사원장 내정자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과 대전지법 원장 등을 지냈으며 신망과 존경을 받는 강력한 법관"이라며 "연세살인범 유영철 사건, 대구그룹 부실회계 감사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문 복지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보장학회장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KDI에서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으로 있는 복지 및 연금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네트워크!
"Hansang Network, The Leading Creative Economic Strength!"

제12차 세계한상대회

THE 12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3. 10. 29(Tue) - 31(Thu)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성공을 거둔 한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혀 나갑니다.

주최 | 재외동포 경제단체 주관 | 재외동포재단, 광주광역시, 매일경제신문 · MBN

후원 |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www.hansang.net